

대동고 시험문답지 전 과목 해킹 시도했다

중간·기말고사각 10과목 등 모든 시험 자료...원격 전송 방식 영어 '핀번호 형식' 답안 확보 못해...올 초 방법시스템 꺼져

더 높은 성적을 위해 학교에 집합한 대동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 확보를 위해 십여 차례 이상 집합한 학생들의 범행은 학교 방법 시스템이 올해 초부터 꺼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나 학교도 책임 소지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 방해·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된 대동고 2학년 학생 A·B군은 지난 1월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의 최초 침입 시기는 중간고사 직전인 지난 3월 중순으로 조사됐다. 당시 교내 방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이들은 기말고사 직전(6월 중순~7월 초순)까지 13~14차례에 걸쳐 교무실에 침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간고사 10과목과 기말고사 10과목 등 모든 시험 과목의 자료를 빼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초기 이들은 교사 노트북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을 삭제한 뒤, 원격으로 캡처 화면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시험 자료를 빼내려 했다.

그러나 화면 캡처와 전송을 위해선 매년 명령어를 입력해야 해 이들은 시험 자료를 직접 회수하기로 범행 수법을 바꿨다.

그렇게 이들은 중간고사에선 한국어·지구과학·영어 등 3과목과 기말고사 영어 1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 답안을 확보했다. 확보하지 못한 시험 과목은 출제 교사가

범행 시기에 문제를 내지 않았거나, 시험 자료 자체가 캡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 과목은 출제 교사 중 한 명의 노트북 잠금이 '핀번호' 방식이라 보안을 해제하지 못했고, 악성코드 실행에 문제가 생겨 답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로 시험지 출제와 관리 방식, 학교의 보안 등 다방면에서 허술함이 드러났다.

일부 과목 시험지나 답안지 파일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다.

이런 과목의 경우 캡처된 이미지 파일이 아닌, 시험지 파일 자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학교에 침입할 당시 작동하지

않은 방법 시스템은 올해 1월 진행됐던 '공간 재배치' 공사 이후부터 쪽 꺼진 상태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생들이 적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가량 교무실에 머무르는 동안 교내에 있던 경비 인력은 침입 정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학생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해 구속영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 적용된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새벽 광주서 빗길 교통사고 잇따라

새벽 사이 내린 비로 광주에선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께 금호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전기차와 외제차 간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우회전 하던 외제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전기차 운전자 A씨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외제차의 전면부와 전기차 후방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3시17분께 서구 유촌동 한 도로에선 운전자와 가로수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B(45·여)씨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새벽 사이 내린 비로 미끄러진 도로 위를 달리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재영기자

목포시내버스 운행 중단 위기

천연가스 대금 11억여원 중 6억8천여만원 결제 못해

목포시내버스가 필수 연료인 천연가스 대금조차 결제하지 못하면서 운행 중단 위기에 봉착했다.

1일 목포시내버스 업체 등에 따르면 천연가스대금 미결제 대금 11억여원 중 6억8천여만원을 목포도시가스에 결제하지 못해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다.

미결제 대금 11억여원 중 6억8천여만원의 최종 결제 만기일은 이날까지다. 목포도시가스측이 미결제 대금의 최종 결제시한을 줬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목포시내버스의 총 부채 누적 액수는 현재 3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 가수금이 96억여원, 은행부채 90억여원, 천연가스요금 미결제액 11억여원, 6·7월 임금 지급액 23억여원, 퇴직급여금 100억여원 등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목포도시가스에 시내버스 천연가

스대금 결제 시한 유예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시내버스 관련 용역에서 2021년 목포 시내버스의 적자가 43억여원으로 나타나는 등 매월 적자가 매일 3억5천900여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100원 버스 시행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상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불법 유사 운송을 근절해 시내버스 승객을 늘릴 수 있어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도시가스 측에 결제 시한 유예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내버스 용역 등 보고회에 시내버스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등 대책과 시내버스공공화위원회를 통한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지금은 휴가 중' 최교 절정인 피서철을 맞아 1일 오후 광주의 한 상가에 여름 휴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김애리기자

집단폭행 영상 '일파만파'...경찰 수사 착수

SNS에 '광주 여중생 학교 폭력 영상' 떠돌아

한 여학생이 집단폭행 당했다는 신고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폭행 당시 영상이 떠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SNS에 '광주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동영상은 피해자가 울며 "아프다"고 말았고, 다른 학생은 비속어와 함께 "예쁘게 찍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나자 가해 무리들은 "어디 더 맞을래? 아이고 예쁘다"라고 비웃는 목소리도 담겼다.

현재 해당 영상의 원본과 SNS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본 일부와 게시물 댓글이 퍼져나가고 있다.

해당 영상과 관련된 폭행 신고가 지난 달 27일 서부경찰서에 접수돼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안재영기자

는 상황"이라며 "광주시가 급여 지급을 월급제로 전환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에는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인사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동의를 수용해 안 그래도 불안정한 일자리에 처해있는 돌봄인력이 폭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다인기자

돌봄서비스노조 광주지부 "급여 지급 월급제 도입해야"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만 시급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광주사회서비스원 16개 소속 기관 중에 오직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들만 시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고 대기 시간, 이동시간도 무급으로 처리되고 있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인터폴 '적색수배'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적색수배 조치가 내려졌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최 전 의원의 여권을 무효화하며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로, 8개로 나뉘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인터폴에 가입된 전 세계 사법당국에 공유된다.

또 신병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앞서 최 전 의원에게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지기 전 자진 반납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터폴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현재 시의원 시절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서 특정 유치원이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 전 의원은 지난 6월2일 필리핀으로 돌연 잠적했다. /안재영기자

목포해경, 섬 응급환자 2명 이송

제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섬마을에서 2명의 응급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목포해경이 육지로 이송했다.

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9분께 진도군 섬남도에서 주민 A(80대)씨가 뇌경색 의심 증상이 있어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파출소 연안 구조정을 급파했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씨를 연안 구조정에 탑승시키고 비바람을 뚫으며 진도 서방향에 도착, 대기하고 있던 119 급급대에 환자를 인계했다.

앞서 해경은 같은 날 오전 1시 45분께 신안군 신의도 주민 B(40대)씨가 급성 맹장염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상에서 경비 중인 경비함정을 급파해 육지로 이송했다.

해경의 도움으로 긴급 이송된 응급환자는 목포 소재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알몸 흥기 난동 40대 테이저건 체포

벌거벗은 남성이 주택가에서 흥기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을 맞고 체포됐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대)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광주 동구 주택가에서 비를 맞으며 나체로 활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를 설득하는 경찰관을 갑자기 공격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A씨가 흥기를 버리지 않자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했다. /오복기자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